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내가 그리던 마흔살, 현실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고 살아간다. 인간은 항상 보다 나은 위치의 삶을 갈구하는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라고 할 수 있는 밤의 여왕의 노래는, 리즈가 이탈리아 야외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中 모차르트 ‘마술피리, 밤의 여왕 아리아’

스파게티를 위한 아리아

벽하지만, 결국 지난 삶 속에서 자신이 라는 중요한 존재가 빠져있다고 판단한 리즈는, 가족, 사랑을 모두 뒤로 한 채 이탈리아, 인도, 그리고 발리로 자신을 찾는 여행을 떠난다.

조수미는 이 곡을 가장 잘 부르는 소프라노 가운데 한 명으로 마술피리 밤의 여왕 역할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들리는 40대 위한 서적 붐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결정지어라’

나이 사십을 ‘불혹(不惑)’이라 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나이인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귀가 솔깃해진다.

15년만에 만난 친구에게 부인을?

로맨틱 코미디 ‘루브’, 내달 1일까지 예술극장 통

극단 ‘사람 사이’가 로맨틱 코미디 ‘루브’를 무대에 올린다. 12월 1일까지 예술극장 통. 한 여자를 각각 아내로 삼은 고교 동창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루브’는 머레이 쉬스갈의 원작으로 극단 대표인 송정우씨가 각색하고 연출까지 맡았다.

그의 파트너로 자신의 부인 엘렌을 소개한다. 엘렌과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한 밀트가 새 애인과의 결혼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개한 것. 결국 밀트의 뜻대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여성친화마을 조성 워크숍’ 29일 광주여성재단

여성 단체·기관 협력사업인 ‘여성친화마을 조성 지원 사업 평가 워크숍’이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생활 균형에 관한 새로운 구상’, ‘오월 여성 이야기’, ‘여성운동과 역량강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등 협력사업 대표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현대·고전 어우러진 빛고을 아리랑 ‘모정’

30일~12월 1일 남구문예회관

모정(母情)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특히 고난과 굴곡진 인생사 앞에서는 더 강인한 힘을 발휘한다. 현대무용, 모던발레, 한국무용이 어우러진 ‘2012 빛고을 아리랑 모정’은 어머니에게 전부였던 자식을 잃은 이가 세상에 건네는 화해의 이야기를 다양한 몸짓으로 풀어낸 무용 총체극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왕 무덤의 선소리와 쇠뿔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좋은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를 전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대원여행사) featuring winter train travel packages. It includes details about ticket prices, travel dates (12/24, 12/31, 1/11-12, 1/18-19, 1/25-26), and contact information (062)526-7000.

Advertisement for Geumssojang Hotel (금수장 호텔) and Arirang House (아리랑 하우스). It promotes a 2012 year-end banquet (연말 송년모임) and offers various services like seminars and conferences. Contact: (062)525-2111.